



# 금감원, 2011년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총 122개로 나타남.

-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16개, 증권회사가 20개, 상호저축은행이 79개, 카드사가 7개임.
- 판매제휴계약 건수는 생명보험이 438건, 손해보험이 322건이었으며,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347건으로 가장 큰 비중(45.7%)을 차지함.

■ 2011년 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15.8% 증가한 7조 3,534억 원을 기록함.

- 생명보험의 경우 10.4% 증가한 6조 1,03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(57.7%)에 힘입어 52.1% 증가한 1조 2,495억 원을 기록함.
- 상품별로는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7조 2,761억 원으로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(98.9%)을 차지함.
-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7조 554억 원으로 전체의 95.9%를 차지하였으며, 증권 2,932억 원, 저축은행 48억 원 순으로 나타남.
  - 은행 및 저축은행의 실적이 각각 16.7%, 182.4% 증가한 반면, 증권사 실적은 1.7% 감소함.

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대형사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가 확대됨.

-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(삼성, 대한, 교보)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가 전년대비 46.4% 증가한 1조 5,216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점유율도 6.1%p 상승한 24.9%를 기록함.
-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(삼성, LIG, 현대, 동부)의 실적이 118.4%나 증가한 9,420억 원을 기록한 반면, 중소형사의 실적은 21.1% 감소한 3,075억 원으로 나타남.

- 2011년 중 방카슈랑스 채널에 지급된 수수료는 전년대비 14.6% 증가한 8,160억 원으로 나타남.
- 은행 보험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는 11.6% 증가한 7,734억 원(생명보험 5,659억 원, 손해보험 2,075억 원)으로 전체 수수료의 94.8%를 차지함.

(2011년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, 금감원, 3/13)